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英伊關係急迫 ―石油禁輸問題를中心으로―

一

二十八日 羅馬電에 依하면 去十八日 맛시스트大評議會는 緊急會議를열고 聯盟에서 對伊石油禁輸를 斷行하는 境遇에는 곳 聯盟을 脫退하고 制裁參加國과 國交를 斷絶하는 同時에 空軍決死隊의 動員으로 地中海上의 英艦隊를 爆擊하야 乾坤一擲의 一大決戰을 敢行한다는 非常치 안흔 決議를 通過식혓다한다。

聯盟의 對伊制裁案은 十一月六日에 聯盟諸國은 (一)伊太利에 對하야 政府、個人을 不問하고 金融을 不與할것 (二)武器、軍需品輸出을 禁止할것 (三)通商을 統制할것等을 決定하고 聯盟史上에 前例가업는 制裁案發動이 同月十八日부터 實施된것은 周知의事實이어니와 聯盟의 制裁案發動에 不拘하고 伊太利의 東阿軍事行動은 如前히 繼續될뿐이오 秋毫의 反響도 업스므로 聯盟制裁委員會에서는 制裁發動의 有効的成果를 엇기爲하야 禁輸品目中 石油、石炭、鐵、銅、棉花等의 戰爭繼續에 絶對必要物을 追加하려함으로 이에問題가 重大化하게된것이다。

二

以上 軍需工業의 必須原料品은 거이 그全部를 外國에 依賴하게되는 伊太利로서는 萬若 이것이 禁輸品目中에 追加되다면 東阿戰線에 大異狀을 呈하게될것은 勿論이므로 今回와가튼 爆彈的決議를 하게되것이지마는 이것이 一種의 威脅手段인지는 모르나 如何間 英國에서는 伊太利의 最後的決議에 不關하고 旣定方針대로 邁進할 決心을 表明하고잇다。十二日로 延期된 制裁委員會에서는 石油以外에 鐵、棉花等도 禁輸品目으로 討議하리라는대 現在의 周圍情勢로는通過될 可能性이 多分히 잇서보인다。卽 英國政府는 二十八日 伊太利의 爆彈決議가 報道된直後에『大英帝國의威信上、聯盟의名義上、伊太利가 如何한 手段에 나오드래도 此에 對應할準備가잇다』는 強硬한 決意를表明하엿고 佛首相 라발氏도 체못치 駐佛、伊大使의 抗議에對하야

伊太利는 石油禁輸에 對하야 戰爭에 類似한 手段으로서對抗하려한다고 하나 그手段이 假使 英國軍艦을 攻擊할 境遇엔는 右는決코 單純히 英國에 對한戰爭行爲일뿐더러 同時 佛國도 包含한 國際聯盟加入國全體에 對한戰爭行爲라고 볼수박게업다 佛國은如斯한 境遇에는 英國을 援助하지안할수업는 立場에잇다

라고 答辯하엿다。

三

못솔리니는 때때로 今回와가튼 爆彈宣言을 連發하여 왓고 또大膽한 行動을 敢行하여 온것은 事實이나 佛蘭西를 通하야 和協工作에 不怠한 事實도 吾人이 熟知하는 바이다。最近에 와서 伊太利는 從來에 에디오피아 全領土의 宗主權要求를 抛棄하고 오가덴、티그레、하랄三州의一部에 對한 專管領域設置(宗主權要求는아니다)와 右領域에의 伊警察隊 配置及 에國高原地帶 (本部)의 國際管理案等 相當한 英斷的 讓步를 하엿슴에도 不拘하고 英國은 티그레州에 伊軍이 侵入하엿다는것을 旣定事實로 認定하고 右三州를 專管地域으로 할수는 업다하야 斷乎反對를 表示한 關係上 和協工作은 停頓되고 그後 英國은 聯盟諸國을 動員시켜 制裁規定을 發動케한後 着着 制裁發動의 實効를 取得하려하는대 現在의 英政府는 對伊制裁를 政綱으로 過般總選擧에 大勝하엿스니만치 從來以上으로 强硬한 態度를 取하게된것은 事實이다。다시말하면 못솔리니가 和協工作에 뜻이업슴이 아니면서도 盲目的으로 버티다가 이제는 制裁案이 發動되고 英政府도 積極的 行動을 할수잇는 말하자면 時期가 太晩하도록 버틘것은 確實히 失策 이다。그리고 現在 伊太利는 制裁規定이 發動되지 아니하다 하드래도 에國征服이 容易치 안흔 以上 財政困難으로 戰爭繼續이 疑問視되는 이때에 石油、石炭、鐵、棉花等까지 禁輸된다면 結局 屈服以外에는 他道가 업슬것이다。그러나 事態를 이러케까지 展開식혀노코 只今 屈服한다는것은 國際威信上에도 더할데업는 恥辱이지마는 國內叛亂이 더危險한것이즉 이곳에 못솔리니의 苦衷이 잇는것이다。他面에잇서 英國은 英國으로서의 立場이잇고 또 現下 國際情勢는 英國에 有利할뿐아니라 英國海軍은 伊太利보다 優勢하다는것은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니만치 伊太利의 立場如何에 不關코 못솔리니가 最後手段을 取한다면 此에 對應하기를 躊躇치 안흘것이다。

中央軍北上하면 重大事態를誘致

宋哲元自治通電으로蔣氏激昂

事態日中開戰에直面

【北平三十日發電通至急報】宋哲元氏의 蔣介石氏에 對한 北中自治決行을 表示한 第一通電은 中央政府의 必死的破壞工作을 水泡에歸케하고 蔣介石氏의 激昂을 招致할것은 明白할것으로 如何한 報復手段을 取할는지 豫斷을不許하나 萬一中央側이 自治를 容認하지안코 武力壓迫을 加하는일이 잇스면 日本軍은斷視하지안흘것이며 萬若 中央軍이 北上하야 河北으로 侵入하는形勢를 取하면 日本軍은 北中協定에 基한 當然한 權利로 此를 阻止할터임으로 日中兩軍의 衝突은 免키어려우므로 事態는 日中開戰의 重大事態에 直面하게되엿다 (寫眞은 蔣介石氏)

中國側의抗議 日本外務省에到着

回答不必要라고認定

【東京電話電通】國民政府는 汪外交部長으로부터 有吉大使에게 發한 二十八日附公文에 豐臺問題에對하야 抗議를 提出하엿다는旨를 三十日 有吉大使로부터 外務省에 公電이 잇섯다 右內容은 去二十七日 七八十名의日本兵이 豐臺驛에入하야 北寧、平漢兩線의 連絡과汽車의 移送停止를要求한것은中國의 主權을侵害한行爲임으로 即時中止하기를 要求한것이다 右抗議를接受한 外務省에서는 三十日午前 幹部會에서 그內容에 對하야 檢討를 加한 結果 同問題에 對하여는 이미 須磨總領事와 唐外交部次長과의 協議에잇서서 中國側에서도 充分諒解한바임으로 回答할 必要가 업다는데 意見一致되엿다

伊太利政府 追加召集令

【羅馬廿九日發電通】石油禁輸가 實施되려하는데對하야、伊太利朝野의 英佛에對한 反感은 急激히揚昇되여 伊太利政府에서는 二十九日 大規模의 追加召集令을 發하야 더욱 歐洲時局에 暗澹한 觀을더하엿다

賀陽宮第五王子 御命名式擧行

【東京電話聯合】去二十四日 姬路의 御假寓에서 御誕生하신 賀陽宮恒憲王殿下 第五王子殿下는 三十日 同所에서 御命名式을 擧行하시엇는데 御父宮恒憲王殿下께로부터 『宗憲』이라고 御命名하옵시엇다

宮內省告示第二十七號

今月二十四日誕生하옵신 恒憲王殿下 第五男子名을 宗憲이라고 命名하시엇다

昭和十年十一月三十日

宮內大臣 湯淺倉平

何氏北上은不當

蔣氏의猛省促進

【上海二十九日發電通】有吉大使의 蔣介石氏再會見에 關한 廣田外相의 訓令은 二十八日夜有吉大使에게 到着하엿는데 同大使는 蔣介石氏와 協議한後 兩三日中에 第二次會見을 行하고 外相의 訓令에 蔣介石氏가 何應欽氏를 北中最高責任者로 任命한것은 北中民衆의 自治要望을 不當히 壓迫하는 것으로서 도로혀 事態를 惡化케하는것이라는것을 力說하고 日本의對中三原則에 對한 中國側의 不誠意를 難詰하야 蔣介石氏의 猛省을 促하기로되엿다

國府當局態度에

有吉大使重大決意

【上海二十九日發聯合】財政部長 孔祥熙氏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 有吉大使를 官邸에 訪問하고 過般行政院會議에서 決定한 北中時局收拾辦法 即 何應欽氏에게 全權을 附與하야 北平에 特派하기로 決定한 詳細한 經過를 說明하고 時局打開에 苦慮中인 蔣介石氏의 意向을 體하야 有吉大使의 諒解를 求하엿다 이에 對하야 有吉大使는 北中事態에 對한 日本政府의 重大關心을 披瀝하고 國民政府가 北中辦法決定에 압서 日本政府에 事前의 諒解 乃至 協議가업슨것은 자못 遺憾을 缺한것으로 國民政府의 誠意를 疑心한다는 旨를 言明하엿다 因하야 有吉大使는 國民政府當局의 여러가지 優柔不斷한 態度에 全혀 失望하고 드듸어 重大決意를 굿게가지게되엿다고 信想된다 (寫眞은 有吉大使)

宋氏要請에對해

蔣氏態度冷靜

【北平三十日發聯合】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는 過般來中央政府에 對하야 北中國情勢를 指摘、具體的對策을 要請하엿던바 右要請에對하야 蔣介石氏는 冷靜한 返電을 보내여日

刻下의 情勢에잇서서는 中央에는 和戰共히 辦法이업다 다만 諸君의 對策을 發見하기를바란다 그리고 不得已한境遇에는 國家를爲하야 犧牲될도 또한 光榮이 아닌가

宋哲元氏는 右返電에 激怒하야 거듭如左히 打電하엿다

貴下는 犧牲을 要求하지마는 第二十九軍의 犧牲만으로서刻下의 危局을 救濟할수잇는가 中央은 第二十九軍의 犧牲에 對하야援兵을送할用意가잇는가

蔣介石氏는 右逆襲的返電에對하야 다시冷聽히

援兵의北上은困難

한旨를 返電하엿다 即宋、蔣間의電報戰은 三十日에至하야 드듸어絶頂에達하야 宋哲元氏는三十日如左한 絶緣狀을發하엿다

第二十九軍은 國家를爲하야犧牲되는것은 스려하지안흐나無意味한犧牲은 受할수업다

以上의 結果完全히 宋、蔣兩氏는斷絶하게되엿다

明年度國防豫算 十億五千餘萬圓

今年度보담三千八百萬圓增

豫算總額의四割九分

【東京電話電通】明年度豫算의陸海軍國防豫算總額은 十億五千九百萬圓으로 決定되엿는데 이것을 今年度豫算의 陸海兩省十億二千百萬圓에 比較하면 三千八百萬圓의 增額으로 明年度歲出豫算總額二十二億七千二百萬圓에 對한 割은 實로 四割九分 거의 五割에 가까운 巨額을 占하게되엿다 即 現下 國際情勢의 緊張性은 國家財政을 文字그대로의 軍事豫算이되게하엿다 特히 陸海兩省이 다가티 膨脹의 趨勢를 밟게된 事實은 國防豫算의 特質로 注目될 現象이다 即 明年度豫算의 陸海軍豫算內譯은 如左하다(單位千圓)

陸軍省	明年度	五〇八、〇〇〇
	今年度	四九一、九七二
海軍省	明年度	五五一、〇〇〇
	今年度	五二九、三七〇
合計	明年度	一、〇五九、〇〇〇
	今年度	一、〇二一、三四二

그리고 歲出總額에 對한 國防豫算比率趨勢는 如左하다

昭和六年度	二割七分
同 七年度	三割四分
同 八年度	三割九分
同 九年度	四割二分
同 十年度	四割六分
同十一年度	四割九分

復活承認額과 그財源內譯

【東京電話電通】去二十六日의閣議에提出된 大藏省豫算原案에對하야 復活이 承認된額은 (單位千圓)

第一次承認	二一、〇〇〇
第二次承認	一二、五〇〇
合計	三三、五〇〇

으로서 그中 赤字公債增發이된 一千三百五十六萬圓外에는 財源提供에 依한것이다

即承認額과 財源과의 關係는如左하다 (單位千圓)

第一次承認(十一月二十六日閣議)

陸軍省	一〇、〇〇〇
海軍省	一〇、〇〇〇
遞信省(航空關係)	一、〇〇〇
計	二一、〇〇〇
滿州豫算原案歲出不足額	五、三八〇
合計	二六、三八〇

右에對한財源

鐵道省	五、四三〇
遞信省	二、三八〇
拓務省	五、〇〇〇
赤字公債增發	一三、五六〇
合計	二六、三八〇

第二次承認(十一月三十日閣議)

陸軍省	八、一五〇
海軍省	二、〇〇〇
農林省(東北振興)	二二〇
商工省(中央金庫)	二、〇〇〇
公債利子增	一三〇
合計	一二、五〇〇

右에對한財源

鐵道省	一、六〇〇
遞信省	一、〇〇〇
拓務省	七〇〇
關東州	三〇〇
商工省(日鐵增配)	二、八〇〇
計	六、四〇〇
豫備金減(滿洲事件費第一第二豫備金)	五、〇〇〇
合計	一一、四〇〇
差引不足	一、一〇〇

이 最後의 不足額은 大藏省에서 公債財源에 依하지안코 捻出하기로 되엇다

特別會計繰入에

陸軍部內反對激化

返還하자는主張熾烈

【東京電話電通】成立된 陸軍豫算에 對하야 陸軍省及 參謀本部는 漸次 硬化되고잇는데 特히 軍部를 刺戟하고 잇는것은 再增額 八百萬圓中 三百萬圓의 特別會計의 繰入이다 即 右特別會計의 繰入部分은 特別會計의 範圍內에 잇는 無産從業員大衆의 生活에 密接한 關係가 잇는것인데 主務當局가 此를提出한것은 內閣의 延命策과 不純한 動機에서 나온 自己保全을 爲한데 不外하는것임으로 이것은 軍의 精神과 一致되지 안흠뿐더러 陸軍이 多年唱導하여온 廣義國防及 國防國策의 大方針에 副하지 안는것이다 따라 此際 窮乏을 忍耐해도 日本意識에 徹底하야 右特別會計로부터의 繰入金三百萬圓을깨끗이 財政當局에 返還할것이라는主張이 漸次 熾烈하게되는데 그推移는 極히 重大視되여잇다

陸相責任論擡頭

【東京電話電通】陸軍對大藏의對立에 直面하야 軍部의 要求를 主張할 川島陸相이 政府의 政治的事務的折衝에 當面하야 內諾을 與한 妥協案八百萬圓配定은 參謀本部側의 作戰的立場을 거의 無視한 感이잇서 벌서軍部內에는 川島陸相의 責任論이 擡頭하게되엿다

英政府來月二日 特別閣議召集

對伊重大決議?

【倫敦三十日發電通】英國政府는 十二月二日 特別閣議를 召集하기로 決定하엿다 右特別閣議는 國際情勢의 檢討를 主要目的의으로하는데 對伊石油禁輸의 實施를 有効케할 方策을考究하고또 이에關聯하야 伊太利側에서 報復的決意를 云云하야 一部에는 伊太利가 全歐洲를 戰禍의巷으로誘入케하기 爲하야 軍事行動을 取하리라는 報道까지 傳하는此際 英國政府로서 重大決意를하리라고 豫想되다

一般會計繰入額 一百九十萬圓

◇…朝鮮特別會計만

【東京電話電通】拓務省所管의外地特別會計 剩餘金으로부터 一般會計에 繰入될 總額은 五百七十萬圓을 承認하엿슴으로 兒玉拓相은 三十日 各外地長官과 交涉、折衝한結果 그分擔額은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朝鮮	一九〇萬圓
臺灣	一九〇萬圓
樺太	一四〇萬圓
南洋	四五萬圓

米海軍長官스氏

條約量建艦力說

【華府廿九日發電通】스완슨海軍長官은 二十九日午後 左와如한 海軍年次報告를 發表하야 條約量까지의 建艦計劃實施必要를力說하엿다

海軍軍備制限諸條約의 將來에 關하야 豫言을下하기는 不可能하나 我海軍省의 建艦方針은 아직 不變이다 即現條約量까지의 海軍力을 所有할方針은不變이다 米國海軍의能率은 非常히向上되여잇다 빈즌、트란넨 建艦計劃에依하야 着手한海軍增建計劃은 着着實施되고잇다 現行軍備制限諸條約에依하야 許容되여잇다 軍艦建造에 關하여는 超過艦의代艦을爲하야必要한 三十五隻의 驅逐艦及潛水艦十四隻을 除外하면 全部今日까지에 建艦에 着手하엿거나 또는 豫算을엇고잇다 現行條約滿期後에 戰艦數隻은 艦齡滿期로 되려로此等의代艦은 新協定에依하야考慮를 要할것이다 今日다시必要한것은 海軍의 能力을 保持하기에 充分한 補助艦이다 今日의 補助艦은 舊式으로速力에잇서서도 不充分하다 漸進的擴大計畫에잇서서는 實行할수잇다 時代에 新補助艦의 建造를 考慮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今回豫算編成은

大體로成功

【東京電話電通】明年度歲出豫算總額은 二十二億七千二百萬圓으로 決定되엇는데 이것을 今年度本豫算二十一億九千三百萬圓에 比較하면 七千九百萬圓의 增加로 今年追加豫算을 加算한 總額二十二億千五百萬圓에 比較하더라도 이미 五千七百萬圓의 增加에 當하고 九年度豫算의 通信事業特別會計를 一般會計로부터 分離한 關係를 考慮하면 國家財政史上 異常한 鉅大豫算을 出現하게되엿다 그러데 歲入의公債發行額에서는 곳까지 當初의 豫算編成方針을 堅持할 結果 嚴密한 意味에서는 明年度自然增收入千三百萬圓을 目標로할 公債發行減을 貫徹하지못하엿다고 할수잇스나 如何든 今年度本豫算의 公債發行額七萬四千九百萬圓에 比하야 六千九百萬圓의 減額을圖할수잇게되엿스므로 公債政策의 犧牲性을 目標로한大藏省의方針은 實質上 實現할수잇게된셈이다 高橋財政의 內外金融市場에 對한 信用은 드듸어 確立되게되엇다고보인다

商工業視察記

各國風俗에따라 製品貌形이各異

③ 方應謨

感想의 둘재로 끄을것은 日本의 商工業이 國際化햇다는 一點이다 어느 工場을 보나 그製品은 國內消費를目的하는것보다 對外輸出을 目的으로한것이더 만타。人絹工場의 製品을 보더라도 印度、南洋等地로 輸出할것이 따로 잇고、朝鮮、中國等地로 보낼것이 따로 잇고、南米나、歐洲에 輸出할것이 따로 잇다。그中에서도 보는 사람의 注目을 끄으는것은 印度로 보낼것은 印度사람의 習性에 맛도록、中國으로 보낼것은 中國사람의 風俗에 맛도록、各各、各國의 風俗、習慣、嗜好에 따라서 가튼 마음을 가지고、여러모양으로 만드러 노왓다는 것이다。

그러고 집 꾸려 노흔것을 보면 印度로 보낼것은 印度人말로 쓰고、中國 보낼것은 中國말로 쓰는等、商標에 씨운 말까지도 다 다르게 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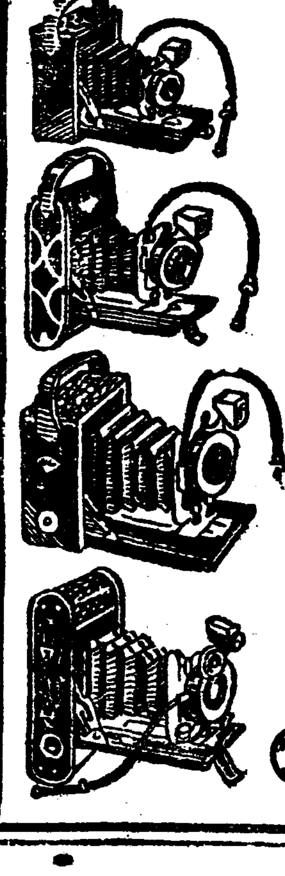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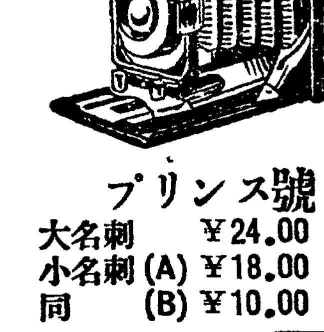
이것을 보고 잇는 瞬間에 나는 當場、눈압헤 보이지 안는 여러가지를 聯想햇다。옳지 이것을 이러케 만들수 잇는것은 科學의 힘이다。各國의 風俗、習慣에 맛도록 만드러 노흔것은 『장사는 무엇이나 顧客本位로 해야 된다。』를 標語로한 新式商業術인 同時에 日本民族이 넓히 世界를 도라다니면서 調査를 綿密히 한 結果다。이것을 各地로 輸出하는데는 五大洋 어디로나 갈수잇는 日本船舶의 힘이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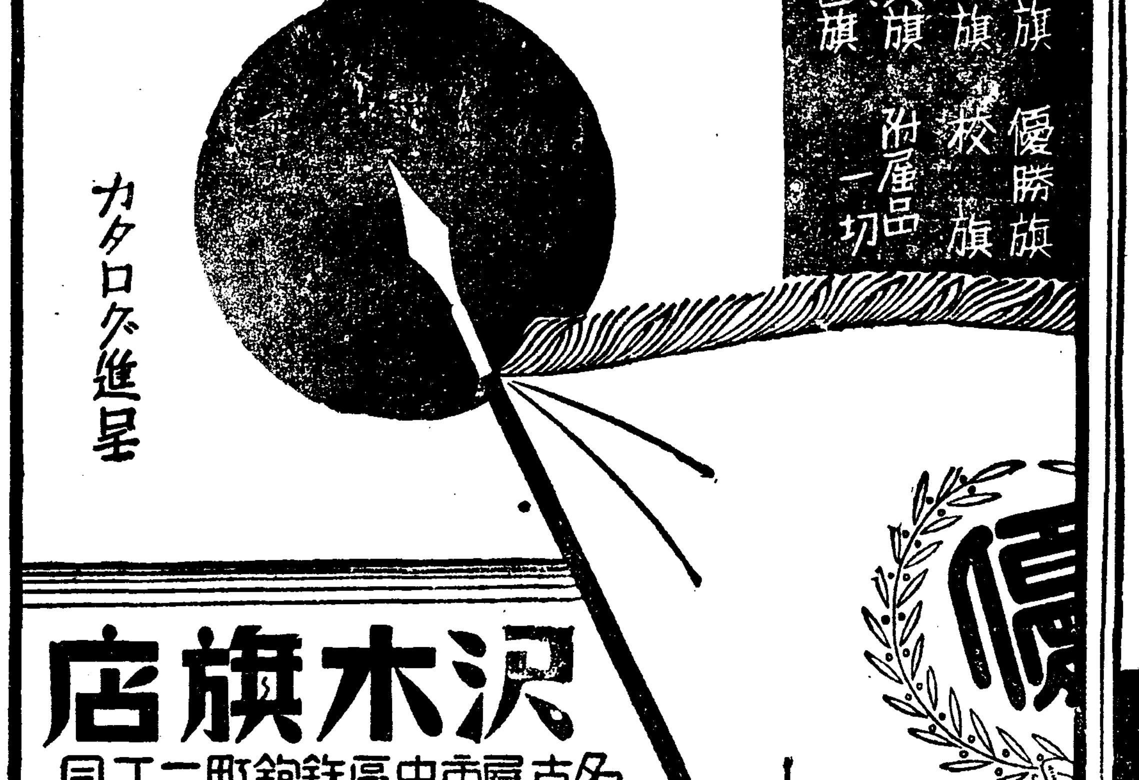
이製品을 目的地까지 보내여 遠慮업시 팔수가 잇는것은 日本의 國力을 背景으로 한 여러가지 便宜와 또는 外國貿易의 圓滑을 圖키 爲하야 特別히 세워 노흔 金融機關의힘이 잇다。그러고 日本民族의 이 모든 活動을 保護하기 爲해서는 日本의 陸海軍이 잇다。이러케 생각해보면 當場、目前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안는것을 通해서 聯想되는 여러가지가 더 重大한 意義를 가진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업지 아니하다。로ㅣ마라는 나라는 하로에 된것이 아니라는 俗談이 잇거니와、日本商工業의 今日잇슴이 決코 하로 이틀의時日과 幾個人의 努力으로 된것이아니요、長久한 時日을 두고、民族全體가 不斷한 奮鬪와 끈임업는 努力을 繼續한 結果로 볼수박게 업다는 생각이 저절로 난다。

그러고 이와 關聯하야 생각나는것은 現代式大工場은 이것을 直接 눈 압에 노코 보면 一見、그經營을 始作한뒤에는 大規模로 될수박게 업고、또한 그것이 大規模化할수박게 업는 理由로 因하야 結局은 國際化할수박게 업다는 一點이다。그 規模를 크게하면 크게 할사록 人件費가 덜 들고、物材의 濫費가 적도록 되엿스니、經營은 저절로 그規模를 擴大하게 될수박게 업고、또 經營規模가 커지면 커질사록 製品의 生産量이 만허질것이니까、結局은 그 販賣市場을 一國內에 局限할수는 업시 되여、自然、國際市場을 要求하게 되는것이다。그러고 이理致는 單純히 말로만 드를때보다 現代式大工場을 目睹할때에 더욱 明白히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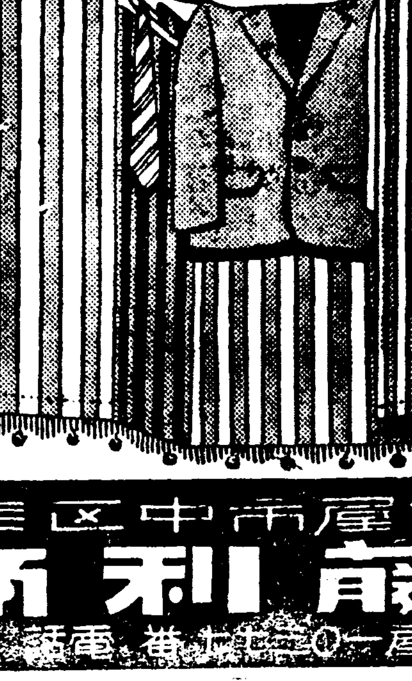
日本이 西洋物品을 舶來品이라하야 崇拜하든것이 어제가트며、또한 外國商品의 輸入을 防止하기 爲하야 國産奬勵를 떠들든것이 바로 四五年前까지의 일이엿는데、商工業으로 今日의 隆盛을 이른것은 그原因이 日本民族의 努力에 잇는것도 事實이나、또한 只今 생각하드시 생각해보면 資本主義自體에 內在한 『經營의 必然的 大規模化』에도 잇다고할것이다。

이러케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로 準備가 적은 朝鮮사람은 종처럼、大工業의 經營이 不可能할것이라는 結論을 어들수박게 업는냐? 하면 나는 그러케는 생각지 아니한다。우리도 될수가 잇다。우리도 小資本을 모아서 大資本을 이루워 가지고、그것으로 人材를 養成하며 工場을 設置하야 出自幽谷하야 遷于喬木式으로 처음에는 朝鮮內와 이 隣接된 諸國에 對한 販賣市場을 目標로 經營해 가노라면 結局은 資本主義的經營自體의推進力에 依하야 大工業化를招致할수박게 업는것이기때문이다。(續)



(小箱型) ¥0.15 ¥0.30 ¥0.50
(小ポケット型) ¥0.60 ¥0.80 ¥1.00
(小コダック型) ¥1.00 ¥1.30 ¥1.50
(ベスト角蛇腹) ¥1.70 ¥2.80 ¥4.00 ¥6.00
(ベストコダック型) ¥2.50 ¥3.50 ¥6.00 ¥7.50
プリンス號
大名刺 ¥24.00
小名刺 (A) ¥18.00
同 (B) ¥10.00
代理店의 特約店은 御相談에應함 一店에限함
名古屋市東區大津町五丁目
製造元 東京カメラ製造所
慶南晋州邑內榮町一四
南鮮代理店 安洞商會
●カタログ는要二錢切手
●仕入은直接製造元으로부러
●商報請求는店名스탐푸捺印하서서申込하시옵소서



沢木旗店
名古屋市中區鉄砲町二丁目
振替貯金 名古屋五五八七

輕便洋服收納器
只今到處에서大好評인折疊式 便利하고經濟洋服タンス代用品
輕便洋服收納器 (簡易吊下洋服ダンス 白洋肌上服掛三個附)
一組代金二圓九十錢 (一個小包送料九十三錢 二個三小包送料一圓〇五錢)

本品은分解自在한四方카ㅣ텐을친完全한折疊式으로洋服ズボン三着掛及兩側에넥타이掛를具備한것이니洋服의型이망처지지안코몬지안지안코늘깨끗한洋服을입을수가잇다카ㅣ텐은떼여서洗濯이自在합니다ㅣ
(天井及洋服掛等은木製)
折疊寸數 間口一尺八寸 奧行一尺三寸 厚サ三寸强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 名古屋一〇二三七番 電話中三七八六番

收穫物이 들고나는 浦口 — 마포방면소견

產業別赤勞事件 最高에 六年役求刑
昨日三十四名의 審理도 終結
最低는 一年半役에

삼십일 오후네시까지 심리를마친 권영태(權榮台)등 삼십사명의 산업별적색로동조합(產業別赤勞組)사건공판은 계속하야동네시반부터 림회하엿든 대판(大阪)검사로부터 준렬한 론고가잇슨후 최고로 권영태징역륙년을필두로 다음과가티 구형을하엿다 구형이끗난후 다시변호인의 변론이 동여섯시까지 잇섯는데 계속변론은 이일에 잇슬터이고 판결날자는 아즉 작정되지아니하엿다

▲懲役六年 權榮台 ▲懲役五年 鄭泰植 ▲懲役四年 安鍾瑞 李鉉相 ▲懲役三年 安三遠 卞洪大 ▲懲役二年六個月 朴衡南 ▲懲役二年 金晉成 徐升錫 李明新 金熙鉞 崔慶玉 李元奉(女) 許마니아(女) 李順今(女) 安炳春 鄭七星 洪南植 任澤宰 金三龍 李星出 ▲一年六個月 韓元洪 金大容 安秉潤 李景仙(女) 李丙驥 崔小福 鄭龍山 李百萬 金元經 沈承文 崔永昌 朴壽昌

歲末을追頭하야 不正賣買가盛行
하로에仁川府內서二百餘件
警察에서制止、說諭

【仁川】 년말은 박두하야 각종 매매가 성행함을따라 부정간상배가 속출하는 형편이다 이를 제지하는뜻으로 지난 이십칠일 일일간 소관 인천서보안게에서 시내일체를 조사한결과 총건수 이백사십삼건에 달하엿다한다

不正賣買取締事件 制止 四一 注意 一二七 說諭 七四 告發 一 合計二四三件

在阪神同胞의 熱心한懸賞雄辯
朝鮮基督敎共勵會主催로
十一名參加로大盛況

【大阪】 지난삼십일월 이십팔일오후칠시부터 대판시내 서성구(西成區)장교동에잇는 조선긔독교공교회 공려청년회(朝鮮基督敎會共勵靑年會)주최로 제이회관서공려청년현상웅변대회(關西共勵靑年懸賞雄辯大會)를 최광선(崔光善)씨사회하에 개회하엿든바 청중은 입추의여지가업시 만원의 대성황을일우엇스며 변사들은멀니 화가산(和歌山)서궁(西宮)에서가지 십개소의 청년회에서십일인의 참가대표가 열변을토하야 청중의박수성은 장내가진동하엿다 변사중 만독홍일점격으로 리경신양(李敬信)의 절제(節制)란 제하에 양의조리잇는 열변에는 청중이자자하엿스며 심사위원 박현명(朴炫明)외 삼씨의 심사보고가 잇슨후 동십시에 폐회하엿는데 당선자는 일등에 북구 고규환(高奎煥)군 이등에 중앙 최상암(崔尙岩)군 삼등에 서부 김경현(金京鉉)군등이 당선되엿다 당일 참가연사의 씨명과연제는 다음과갓다

참되사랑 高奎煥(北區)
靑年敎育의原理는무엇 崔相岩(中央)
飮酒와生活의危機 金京鉉(西區)
節 制 李敬信孃(東部)
基督靑年의重大使命 朴載華(和歌山)
朝鮮의要求하는靑年 李秉逸(守部)
奮鬪하라 金松鶴(尼崎)
現代靑年의覺業 崔學模(堺)
最後의宣告 李政泰(今福)
建 設 石善珍(今宮)
우리의活路 方裕順(今宮)

歐亞航空機墜落 四名死傷

【上海三十日發聯通】 섬서성서안(陝西省西安)에서 온 전보에 의하면 지난 이십칠일 감숙성 란주(甘肅省蘭州)를 떠나 서안으로 향한 구아(歐亞)항공회사 「융롱」오후그는 감숙성 령대(靈臺)부근에서 추락되야 조종사「부롱」긔관사 「마이엘」(모다독일인)량씨는 직사하고 승객 중국인 두명은 중상을 당하엿다 이사의 정긔항공편은 금년 이월 한구(漢口) 광동(廣東)사이에서 불시착륙을하야 긔체를 손상한일이 잇서 이번이 두번재의 조난이다

長湍의火災

【長湍】 경긔도장단군장남면고랑포리(長湍郡長南面高浪浦里)진선산(陳善山)의집에서 지난이십칠

◇……秋期柔道聯合紅白戰入場式光景(昨三十日靑年會에서)

元檢事曺仁煥에 二個年懲役言渡
追懲金은六百十九圓

【釜山電話通】 현직 검사의수회독직(收賄瀆職)사건으로서 세상의 주목을 끌고잇든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검사 조인환(曺仁煥)의 공판은 삼십일 오전열시반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정하야 황권(荒卷)재판장으로부터 검사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이년에 추징금(追懲金)륙백십구원 사십전(검사구형의추징금은칠백이십구원이전)의 판결언도가 잇섯다

電車、自働車轢人 老幼兩名重傷

본정서관내에 교통사고가 두건 ‖삼십일 오후두시반쯤해서 영락정(永樂町)게림(鷄林)택시ー의 운전수 최옥동(崔玉童)(三五)이 가자동차를 몰고 태평통(太平通)으로부터 황금정으로 가든 중 경성부청 바로 압헤서 다옥정(茶屋町)일백팔십일번지 방종영(方鍾瑩)(ㅇ)이가 그압흘 가로 건너가는것을 치어서 약간 뇌진탕을 이르킨것을 부근 전중환(田中丸)병원에 데려다가 치료중인데 생명에는 별관이업다고하며 ◇ 동일 오후 다섯시 오분 황금정 오정목 십구번지 강해삼(康海三)(三七)은 그동리 삼십번지압 전차길을 건너가려다가 남위현(南瑋鉉)(二)이가 운전하는 경전(京電)제일백오호 전차에치워 치료이주일의 부상을당하고 부민병원(府民病院)에 입원중이다

新京、羅津間直通
京城과도 스피ー드업
北朝鮮의三大港을中心으로
鐵道當局列車改編

【奉天二十八日發聯合】 철로총국에서는 라진(羅津)개항과 동시에신경,라진간 직통렬차운전에대하야 북선철도관리국과 절충하든중북철측에서는 현재도문(圖們)에서멈추고마는 이백삼호렬차와 이백사호렬차를 직통급행렬차로개편하야 「스피ー드업」을도모하야 신경라진간을 열다섯시간에련락식힐계획을 세우고 총국측의 연구를 재촉해왓스므로 불원간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결정을 하게되얏다 그리하야이백삼호、이백사호렬차가 예정대로 두시간을 단축식힌다면남양(南陽)역에서 경성,라진간의직통렬차인 오백칠호와 오백팔호 두렬차와 련락키로되야 북조선 세항구를 중심으로한신경、경성 간련락은 더욱원활할모양이다

採掘안는鑛山은 鑛業權取消方針
採掘할可能性업는것處理코저
平北道當局對策講究

【新義州】 광산도(鑛山道)평북의 광산열은 점점맹렬하여 광업발전에따라 엇는점도 막대하나일방광산채굴원서를 제출하여 리권만취하고 채굴을 하지안는자가 성행함으로 이폐해를 업시하려고 평북당국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의하야 아직착수하지안은 광산에대하야는 광업령의 실구조에 의하야 광산권취소(鑛山權取消)를 적용하여 신중한대책을 강구한후채굴에착수하지안는리유를 각광산리권자로 부터들어보고 조업할가능성이업는 곳에대하여는 허가취소를 내리려고 목하조사중인바 이로인하야 광업계에 일대충동을주어 리권적광업가들은 대공포를 이르키엇다한다

일오후한시경에 돌연히 발화하야 연소되는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 대소동을이루엇는데 이급보를 접한당지 소방조는 직시 출동하야 소화에진력한결과 동이시경에 진화되엿는데 발화의원인은 실화인듯하고 손해는오집원가량이라는바 전긔진씨는 극빈자로 생도가말이 안됨으로 동리인사들은 동정금을 모집하야 새로히 집을건축하야 주리라고 한다

婦人네에酒酊 留置場身勢

술먹고서 길에가는 남의안해를 희롱하다가 류치장신세를 간얼간망난이가잇다 부내관훈동(寬勳洞)일백칠십팔번지우헌팔(禹憲八)(三五)(假名)은 삼십일 오후 여덟시사십분에 술을 잔뜩먹고 종로일정목 구십번지 압흘 지나다가 마츰 그곳으로 동부인하야 지나가는 부내 무교정(武橋町) 박모(朴某)의 안해 오모(吳某)에게 두팔을 벌리고 끼어안으려다가 무리함을 나무래는 그의남편에게 싸움을 걸어 폭행을하고도 또 무엇이 모잘러든지 싸움을 말리든 인사동(仁寺洞)사는 김모(金某)의 『네타이』와『카라』를 잡어재친후 경관의 말림도듯지안코 술주정을 할부로 하다가필경 종로경찰서원에게 붓들리워 톡톡책망을 듯고 다시 류치장으로 잡어너허 치운잠을자게되엿다

病院가서안오는안해

『마누라 차저주오』하고 경찰에 애원하는사내가잇다 경긔고양군원당면 원당리(高陽郡元堂面元堂里)리화동(李化同)의안해권씨(權氏)(三)는 인수(仁洙)(六)를 데리고 시내 죽첨정(竹添町)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안과에치료 하려간다고 구파발리(舊把撥里)에서 빼스를 타고 시내로 드러온채 날이저물도록드러오지아니하니 차저달라는수색을 소관서대문서에 제출하엿다

重要人物들은 地下에潛入
反滿抗日敎育을식혓다는
新義州華僑事件後報

【新義州電話通】 신의주에서검거하기시작한 화교소학교(華僑小學校)의 반만항일(反滿抗日)교육사건은 평화로운 조만국경에 큰충동을 주엇슴으로 당국에서는 중국령사관측의 항의를 단연거절하고 이십일일밤부터 이십구일 아츰까지의 사이에 제이차검거를 하엿는데 배후에잇든 중요인물의 태반은 지하에 잠입하고 업스나 가택수색한결과 중요한 증거서류가만히 이를 압수하고 화교학교원 장소가(張紹家)(三)를 엄중히 취조하는동이다 남경(南京)방면과 사이에 자금등의 련락이 잇섯든것은 확실하야 사건이 압흐로 확대될것 갓터 그진전이 자못 주목된다

新義州事件은 問題업슬테다
삼년전의잡지가문제라고
在京總領事范氏談

신의주 화공학교사건에 관하야 범한생(范漢生)총령사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작일 전조선각지령사관 시찰을마치고 도라와서 신문을보니 신의주화공학교사건이 크게문제가 되여잇슴으로 곳신의주령사관에 문의한바이섯든데 결코 학교안에서는 항일(抗日)의 교과서를 사용한일이업고 문제는 이、삼년전의 소붕우(小朋友)라는 잡지가잇서서 거기에 항일(抗日)사상을 고취한글을 씨여잇섯든일은 잇스나 지금은 사용치안는다고 합니다 내가작년부터 일본에 대하야 자미업는 교과서를 전연폐지하라는 엄중한 통첩을 한일도잇습니다 그러고 이번조선각지를 도라단니며 보왓지만 조선내의학교에서 그런교과서를 전연사용치안습니다 본래나의주장이주재국의 법률을직히고 오해가업도록 하자는것이 방침이고 더욱이 조선안의 령사관은모다 내가직접감독하게되여잇슴으로 물론 내방침과 내명령을 드를것입니다 그럼으로이번사건에 대하야는 세간에 오해가업도록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四學校侵入한 怪盜逮捕

【榮州】 경북영주군내에도 년말이 박두하자 강절도소동이잇서 영주경찰서에서는 그진상을 조사하는일방에 지난이십칠일오전령시경에는 본군영해심상소학교(寧海小學校)와 녕해보통학교 의축동등으로 수사에활동중 또괴절도가 침입하야 외투기타를 절취하여갓다는 급보를접하자 경찰서장이하 각주재소원이 출동하야 각방면으로 수색한결과 이십일일오전령시경에 영덕보통학교와 강구학교(江口學校)에괴적이 침입한사실이 잇서서 수사에 몰두하든바 당일오후령시삼십분경에 남정주재소(南亭)관내에서 수상한사람을 체포하야 취조한결과 절도사범의 진범인 강원도방면에서 오는길임으로취조에 따라여죄가 만으리라하며 동절도의 주소씨명은여좌하다고 한다

本籍金泉郡金陵面富谷洞 前科四犯 裵相根(三○)

日曜講話

◇向上會館 午後七時
佛敎俱講話 高思秉 氏
◇南洞敎會 午前十一時
朝鮮監理敎徒의使命 姜泰熙牧師
午後七時
信者의責任 李鎭亨牧師
◇慈恩寺 午前十一時
無緣의大慈 朴漢權先生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猶太人의希望과祝福 申公淑 氏
午後七時
題未定 鄭景玉先生
◇英語講習院 午後三時
英語講話 스파이델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渡世上寶船 金鍾宇 氏
午後七時
今日의靑年이여 洪에스더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朝鮮監理會의過去現在及將來 金永燮監理師
午後七時
現代人과信仰生活 李琮銑先生

魚不信博士歸國
來二日午後二時發車로

사십삼년동안 오로지 조선사람을위하야 그의온갓정성을 다한 세부란스의전과 연희전문학교의 명예교장「에비손」박사는 드듸여 이일오후세시 남행렬차로 그의 고향가나다(加奈陀)로 향하기로 되엿다한다

可憐한馬夫 貨物車에轢傷

【浦項】 지난이십칠일 오전아홉시 이십분경에 경북영일군 동해면 석동리(慶北迎日郡東海面石洞里)압 도로를 동군오천면인덕동(同郡烏川面仁德洞)에사는김룡학(金龍學)(三)이가 말에다가 가마니를실고 구룡포(九龍浦)로 팔러가든도중 전긔장소를 통과한중 뒤에서 구룡포 사는 십하(十河)라는 일본내지인의소유 트럭크 경북제삼백삼십팔호를 본적읍경북안동군서후면성곡동(慶北安東郡西後面城谷洞)에든 운전수 권만석(權萬石)(三)이가 경적을 울니는바람에 말이 놀래여뛰는것을 전긔김룡학(金龍學)은 말을붓들려고 할지음에 전긔트럭크가 뒤에서 덥허부리어 김룡학은 고만자동차 밋헤들어서 머리와 늑골에 상처를입어 두부로부터 만흔출혈을하야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전긔김룡학은 가난한살림사리에 나만흔 어머니와눈먼백부이하 칠팔가족을 혼자벌어 먹고살든중 이와가튼 비참한지경을 당하야 노으니 그의유족들의 슬퍼하는 광경은 차마볼수가 업다고한다

紙幣僞造團의 兩名은潛跡
鍾路署에서搜査中의人物
開城의金基哲、白上德

방금 시내종로경찰서에서 박제삼(朴濟三)등을 검거 취조하고 잇는 십원지폐 위조단가운데 그 공범들인 개성부 남산정(開城府南山町) 칠백삼십사번지 측량기수 김기철(金基哲)(四三)과 동 북본정(北本町)전 인쇄직공 백상덕(白上德)(三七)의 두명은 사건이 탄로되자 날새게피신을하엿스므로동서에서는시내각경찰은 물론지방경찰에까지수배를하엿다

聯合柔道戰에 李鍾憲君優勝
二等은普成權君

朝鮮柔道有段者會主催의 秋期聯合紅白柔道試合은 三十日午後二時부터 鍾路基靑體育館에서 盛大히열리엇다함은 昨報한바어니와 이날紅白戰은 紅軍大將이白軍大將을 물리처서 紅軍이快勝하엿스며 個人戰은 順道會의 李鍾憲君이 六人勝으로 一等을 筆握하엿는데 以下等級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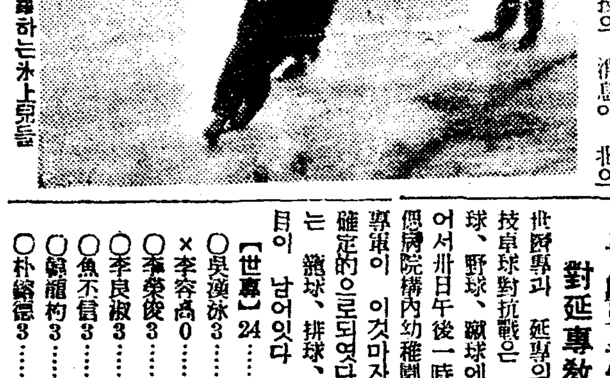
▲一等=李鍾憲(順道)六人勝
▲二等=權正國(普高)四人勝
▲三等=黃圭東(普高) 成貝善(同)
▲四等=金禹泳(靑年會) 姜大鴻(徽新) 黃炯淵(大東商) 安秉瓚(硏武) 沈明澤(大東商) 金成坤(普專) 金啓連(無所) 玄鎭大(開城光武) 金栽榮(大東商)三人勝

A마라손會 邊天幸君一着
타임42分59秒로

서울陸聯主催의 月例第十回A마라손會는 三十日午後三時부터光化門前네거리廣場을 出通決勝點으로 漢江橋北端往復「코ー스」에서 열렷는바 이날 遞信의 邊天幸君은 四十二分五十九秒로 一着을 차지하엿는데 片路及往復時間은 다음과갓트며 前月에比하야 總타임은 約一分○二秒를 突破하엿다

◇片路所要時間
1 金在八(大田)二○分五四秒
2 邊天幸(遞信)二一分○一秒
3 方夏鳳(白馬)二一分○五秒
4 洪世仁(同)二一分二四秒
5 鄭壽吉(同)二一分二五秒
6 張壽榮(同)二二分○一秒
7 白壽基(同)二二分○九秒
8 尹鳳勳(協寶)二三分四○秒
9 李康明(京城)二三分○五秒
10 任斗鎬(同)二三分二三秒
11 朴龍人(永登)二三分四○秒
12 崔錫鎬(京城)二三分五七秒

◇往復所要時間
1着 邊天幸(遞信)四二分五九秒
2着 金在八(大田)四三分一五秒
3着 方壽奉(白馬)四四分三三秒
4着 鄭壽吉(同)四四分四三秒
5着 白守基(同)四六分○八秒
6着 張錫榮(同)四六分五二秒
7着 洪世仁(同)四八分○七秒
8着 李康明(京城)四八分四二秒
9着 尹鳳勳(協寶)四八分五九秒
10着 任斗鎬(京城)四九分四六秒
11着 崔錫鎬(同)五○分五四秒



◇寫眞은 練習하는 氷上兒들

新義州와江界서 벌서滑氷開始

벌서 氷上競技의 消息이 北으로부터 들려온다 平北新義州와 江界에는 數日來의 寒氣로 市街地附近의 연못이 보기조케얼어 江界와 新義州에서는 二十八日부터벌서그곳의「스케ー터ー」들이 練習을開始하엿다한다 그리고 鴨綠江은上流地方만흔結氷한곳도잇스나 新義州附近에는 點點의 流氷을보게되엿다한다

世醫專軍四勝
對延專敎職員卓球

世醫專과 延專의 敎職員親睦競技卓球對抗戰은 世醫專軍이 蹴球、野球、籠球에 三勝한뒤를이어서卅日午後一時半부터 世富蘭偲病院構內幼稚園에서行한바 世醫專軍이 이것마자이겨서 優勝은 確定的으로되엿다 압흐로 競技는 籠球、排球、氷上하키의三種目이 남어잇다

【世專】24……7【延專】
○吳漢泳3……0林炳赫×
×李容高0……3申濟麟○
○李榮俊3……0洪承國×
○李良淑3……0李云永×
○魚不信3……1兪億兼×
○崔龍杓3……0沈云永×
○朴鎔德3……0崔 晃×
○崔性章3……0金永成×
×金濟鎬0……3劉基殷○
○尹日善3……0鄭寅燮×

延專卓球勝捷
對世專卒業班卓球

延專과 世專의 兩校朋春卒業班卓球對抗戰은 三十日午後四時부터 世富蘭偲病院構內에서 行한바 接戰끄테 延專의 蹴球名將鄭龍洙君이 孤軍奮鬪하야 第四라운드에서 延專이 勝捷하엿다

【延專】 【世專】
【第一라운드】
○宋東昊2……1高顯龜×
×李慶得0……2李鍾德○
×池生業0……2權亭植○
○鄭龍洙2……0南 宮×
×洪鴻基0……2金準基○
【第二라운드】
○鄭龍洙2……0權亭植×
【第三라운드】
○鄭龍洙3……0金準基×
【第四라운드】
○鄭龍洙3……0李鍾德×

今日의運動

▲高專리ー그戰=普專對法專決勝 午後二時 京城運動場

暖候로冬物商大打擊

【平壤】 년말의 풍경이 점차 박두하여옴을 따라 가두의 상계에서도 점차 분망한 빗을 띄우고 잇스나 최근의 평양의 긔온은 령도를 중심으로 오르나리고잇서 흡사히도 봄날을 상상하게하여 금년 제일치워진다는것이 수일전의 령하구도록부로서 또다시 온화한 긔후가 계속하고잇다 이때문에 엄동을 위하여 대량구입을하고 긔후가 차지기만 기다리고잇는 겨울물품을 취급하는 상점인 양잡화(洋雜貨)『스토ー브』석탄(石炭)신탄(薪炭)모물(毛物)상들의 격은 상당히 심하다 모직물『메리야쓰』등속도 창고속에 싸혀잇는 상태이다 그반면에 빈민층의 생활선상에는 큰도움이 되고잇는 상태이다

屋傭少女의行方不明

부내 장사동(長沙洞)삼십칠번지 채규렵(蔡奎燁)씨의 집고용녀김귀비(金貴妣)(一三)는 삼십일오후세시반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로 심부름을간후 돌어 오지안는다하야 그의주인은 종로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여왓다

(大)(田)(의)(要)(望) (四)

特派員 金麟倂

現實의貧弱은事實 發展의餘地는充分

施設에公平을務望

상공단바와가티 대전은 교육시설에잇서서 사회시설에잇서 이러타할만한것이 업는것은 대전사회를 위하야 실로 유감이다 그러면 상공도시로서의 대전은 어떠하며 또 장차 상공도시로서 발전할 조선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대전의 상공업이라하지만 상술한바와가티 조선인의 경제적 실력이 너무 빈약하니만치 상업에잇서서 상당한 규모의 상점이 업고 공업이라하면 조선인경영의 정미소가 삼사개소잇고 교통운수회사가 두어개잇다 그런데 근래적 대공장으로서는 군시제사회사(郡是製絲會社) 대전공장이잇는데 약팔백명의 로동자를 수용하고잇는것이 대전에서는 제일큰공장이다 물론이외에도군소공장이 잇지만 조선인경영의것은 겨우 양조업경영이 몃곳잇고는 별로 볼것업는것은 상업이발달못되것과 맛찬가지다 다만 명년에는 종연(鐘淵)방적회사의 대전공장건설계획이진행되고잇는데 이공장은 이미대전시본정(本町)에 긔지매수가 예정되야잇서서 팔백만원의 거액을 드려가지고 완성되면삼천여명로동자를 수용하게된다고한다 그런데 종방회사에서는 공장긔지 매수에잇서서 토지소유자인 지주에게 토지의 협가방매를 도당국을통하야 획책하고 잇는모양이다 물론 대공장신설에따라 대전시의 발전에 미치는영향도크며 상업의 발달도긔대할수잇서서 대전부민으로서는 누구가 갈망하는바이겟지만 여하튼 종방이라는 회사는 영리회사이다 더욱 종방은 일본에서는 제일 큰방적회사로서 이할오분의고률배당을 하는 대영리회사이다 아모리 부민에게 리롭고 대전의 발전을 촉진시긴다하야도 영리회사 새로운 특별리윤(利潤)을 어드려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지방민이 조금도 불리(不利)한 공헌(貢獻)을 할필요는 업슬것이다 시까보다 만히 밧겟다면 모르되 토지가격을 시까대로 요구하는데 특별히 협가매수를 책동하는것은너무나 심사가 괴악하다할수바게 업다

대전부의 지역이 크고 교통의 편이 매우조흐니만치 공업도시로서나 상업도시로서의 발전을 긔대할수잇다 그러나 대전에는 강이업는것이 큰결점이다 금강(錦江)상류인 태전천(太田川)이 대전부의 중앙을관통하야 흐르고잇스나 연고로이적어 일종의건천(乾川)에불과하다 근대공업에는 특히방적가튼 섬유공업(纖維工業)에는 수질이 조흔물이라는것은 절대로필요하다 강이잇스면 수운의편이 조흔편 아니라 공업용수로 리용하기조흔것이다 또하나 공업도시로서의결점은 태전이 군산(群山)과 목포(木浦)의두항구에 통하는철도의편은 잇스나 대전으로부터 군산, 목포의거리가 상당히멀다 평양(平壤)에서 진남포(鎭南浦)까지 경성(京城)에서 인천(仁川)까지 신의주(新義州)에서 압록강(鴨綠江)까지의공업지와 항구의 거리에 비하면 멀다 그러나 이와가티 상공도시로서의대전이 여러가지 결함이잇지만 경부선의 중간에 위치하야 호남선의 지점이되고 거리는 멀지라도 군산과 목포두항구에 통하게되엿다는 부근에 미곡가튼 의 농산물이 풍부한것등으로보아 대전부는 금후도 비약적으로 발전할것은 틀림업다 당국자도 좀더도시 시설을 공평되게하며 교육긔관자 사회시설을 확충하야 다른도시에 뒤떠러지지 안코 힘써가며 또부민으로 제적실력양성에 좀더 진보적(積極的)힘을 경성하야 나아간다면 결단코 비관할것이 아니고 장차 비약적으로 발전할것을기대할수잇다 다만 현재의 모든시설과 대전이라는도시의 경제적을가지고 판단한다면 아모것도 보잘것이업다고 한마듸에 꼬지게되는것이 유감이다 (끗)

都市景氣의바로메터 土地家屋熱冷却

金融機關도無定見貸出에부릭

平壤經濟界에大衝動

【平壤】 각금융긔관의 긴축한 대출(貸出)에도 다소 영향이 잇섯지만 엇잿든 평양부내 특히 구시가방면의 토지와 건축물관계의 경긔는 비상히 활발햇섯스나 최근에는 매매가 중지되여 구가하든『인푸레』경긔도 일장의 춘몽화하려이지 한산한 상태를 보힌다

재작년이래의 토지건물의 경긔는 실제이상으로 가격이 놉하며출을 모르고 올라갈뿐으로 한개의 토지와 집을 한사람이 두번, 세번 파랏다 삿다 해도 리익을 어덧스나 금춘부터는매대가업서저서 토지와 건축물가격이 떠러질뿐이며 각금융긔관에서도 대출을 경게하게되여백사십여명의 중개업자는 생활전선에 위협을 당하게되엿고 그중에서는 악화하여저서 형사문제까지 일으키고잇는 현상이다 또한 토지와 가옥관계의 경긔가 악화함을따라 구시가방면의료리점(料理店)에서도 종래와가튼 경긔도 업서저서 맹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햇든 실업업는 업자들은 극도의 고통을 늣기게되엿고 따라서 료정을 배경으로 직업전선 제일선에 활약하든사백명 기생(妓生)들의 영업도전과가지못하여 회루게방면에 까지 예민하게감각이되여 그네들 생활선상에까지 대이상이 생겻다고한다

進行車탈라다 驛夫一名轢死

【任川】 지난이십구일 오전십시십오분 옥천역발 부산행렬시렬차에 이원역부(伊院驛夫)리응길(李應吉)(三)은 기차로 이원을 가라고 진행하는차를타다가 떨어저서 갈려죽사하엿다는데 리는 옥천에볼일이잇서서 와다가 그처럼 무참하게 죽은것이라고 한다

財産權移轉햇다고 親母家에放火

【大邱】 주색에 방탕한 자식이 어머니에게 감정이 잇다고 자긔집에 방화(放火)한 악착스러운 부랑배가 잇다 그는 의성군 의성면 시산동 (義城郡義城面是新洞) 팔십칠번지에 잇든 신태률(申泰律)([illegible])로 항상 가정살림을 돌보지안코 매일 주색에 빠저 잇스므로 그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야 걱정한 남어지 수차례나 달래엇스나 종시 듯지안코 가산을 여망이 업스므로 그어머니는 재산이라고 단지전답두락, 남아잇는것을 다음자식에게 이전등긔한것에 전긔태률은 분개하고, 그어머니가 살고잇는 주택에 지난 십일월오전사오시경에 방화하야 가옥일동을 전소하고 진화한바 신태률은 방화죄로 경찰부에게체포되여 방금취조중이라는데 불일래로 안동검사국으로 송치한다고한다

雲岩貯水枯渴로 南電送電에支障

火力發電으로僅保持

【群山】 동진수리조합(東津水利組合)의 저수지(貯水池)인 운암강수(雲岩江水)는 금년여름의 강우(降雨)를 겨우 맛친후로 저당한 강수량을 보지못하야 소수위(水位)인 로 남선전긔(南鮮電氣)에서는 동저수지의 잉여(剩餘)수력을 리용하야사전키로되엿든의전력을 각수용자에게 배급하고잇는터인바 전긔와갓치 저수의격감으로 발전이불능케되엿다한다 그리하야 남전에서는 지난이십칠일부터 군산에다 예비를하야두 화력긔(火力機)를 운전하야 방금 근근발전을하고잇는 형편이나 압으로가까운 시일내에상당한 강우가업슬때에는 일반수용가의 송전에대하야 일대지장을 이르키리라한다

갈하지안는것이 판명되엇스나 일방으로 도수관의 고장에 대하는 (水源池로부터무친導水管)시설이래 도수관회사에서 전임공부(專任工夫)를 파견하야 이래 책임지고 수리를 계속하고 잇스나 고장의원인을 알지못하야 부당국에서는 방금이에대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중이라는데 그 수도관을 사용한 지방은 조선내에서 이개도시밧게는 업다하며 타처에는 이러한 고장이 업시 양호한 성적을 내이고 잇는터임으로 그원인 조사에 몰두하고잇다고 한다

免稅額面에나타난 各地方의災害慘跡

井邑高敞兩郡엔 免稅額四萬餘圓

★……面積이七千八百餘町步

井邑稅署의最近集計

【井邑】 정읍세무서(稅務署)에서는 일개월전부터 직원이 총출동하야 동서관내에 미증유의한재로 인하여 전연모를내이지못한논과 또는 수확상으로 보아 륙할이상의 감수를 당한 재답을 일일이 조사하여 면세등게를 매여온동 지난이십구일에 발표한바에 의하면 정읍 고창(井邑高敞)량군내 재해지 면적은 칠천팔백사십정보로서 그에대한 면세액(免稅額)은 사만삼천원이나 된다고한다

免稅地八千町步

關係人員이三千餘 長津等四個郡에

【咸興】 함흥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에서는 관하 장진(長津)군등사개군에 홍작을 맛난 사개군 십개면에 궁하여 백정보이상소유토지에 대하여 면세(免稅)하기로 그간 출장조사중이든바 최근에 조사를 종료하엿다는데 그면적은 팔천구백십일정보며 면세액은 일천이백오십사원이십구전 인원 삼천일백오십오명인데 각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面積(町步)	免稅額(圓)	同上人員(名)
長津	三、〇〇〇	三三三、三〇	九六九
端川	一、〇四六	五五六、五〇	四一六
安邊	七九九	六四、七〇	七四一
豐山	四、〇六六	二九九、七九	一、〇二九
計	八、九一一	一、二五四、二九	三、一五五

南原의模範地主 거리거리頌德碑

【南原】 다 가튼사람인 동시에 지주이것만 농촌 소작인간에서 새여나온이야이를 들으면 신인 신세으로 후하니 박하니 말이 만타 그중에 오즉모범적지주의 이약이 『주인광인축』 남원군사매면(巳梅面)에거주하는 천여석을 추수하는 삼십일세의 청년지주 류규현(柳圭鉉)씨로서 군소작위원회에 일차도 불여본일이업시 소작인간에 명화로히 지나오든중 금일정조검사(正租檢査)제로인하야 『가마니』포장을 다른지주는 다단행하고 잇는데 오즉씨만은 종래의 『섬피』로 바듬으로 소작인즉으로보면 매석에 근사십전의 몽리가 되다하며 일반적으로도 후하게함으로 씨에대한 칭송이 자자하야 여긔저긔에 송덕비가 섯다고한다

仁川驛構內에서 汽車와牛車衝突

【仁川】 지난이십팔일오전십시경 인천역구내에서 화물(貨物)구내 운반중의열차와 부천군(富川郡) 남동면(南洞面)운연리(雲宴里)김봉룡(二七)의 우차충돌하야 차우(車牛)는 중부에전치삼주일의중상을입히엿다한다

紛糾를거듭하는 進永産組遂許可

進禮支所도設置

【進永】 삼년전인 재작년봄부터 당지리규학(李圭鶴)씨의 발긔로 진영산업조합(進永産業組合)을설립하기로되여 허가신청까지 제출한후 간부간에 엇더한 감정문제로 결국 지방적중대문제화하야 분규에분규를 거듭하야입리엿다는데 조합장엔 현진영면장김윤석(金潤奭)씨로 리사에신호고상출신(神戶高商出身)인 박수갑(朴壽甲)씨로 결정되여 불일간에 창립총회를 소집하리라하며 동시에 진례지소(進禮支所)도 설치한다는바 지방이농업지대인만큼 조합의목적도 농업을 주안으로 함으로 농촌발전상압흐로 만흔긔대를 가지고잇다고한다

朴成雲氏美擧

德率簡易校에 二千餘坪寄附

【長湍】 경긔도 장단군 강상면 덕적리(長湍郡江上面德積里)에잇는 덕솔(德率)간이학교는 작년사월에 개교한이래 학교실습지가 업서 아동교육상 지장이 불소하야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든바 이사정을 알게된 개성부 고려정 박성운(朴成運)씨는 자진하야 학교긔지와 실습지로 일천팔백팔십륙평 (시가 천여원)를 동교에 긔부하얏다는데 전긔 박성운씨는 자수성가한분으로 그다지 유여한처지도 아님에도불구하고 그와가티 긔부함에대하야는 당국은 물론 일반인사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平南에年末警戒

【平壤】 일천구백삼십오년도 압흐로 한달만 지나면 마을닷치게되여 벌서부터 가두에는 년말대매출이라는 간판 그리고 기가 바람에 펄펄날고잇서 년말기분이 농후한바 이에 도경찰부보안과에서는 금년은농촌, 도시를 막론하고 경기가 조와씀으로 강, 절도사건이 례년에비하여 적으리라고 보나 년말이 닥치면 어떠한 돌발사건이 발생할는지 알수업스니 경계를 엄중히 하라고 근일중 관내각서에 통첩을 발하기로 되엿다한다

平壤和信支店 十二月一日開店

【平壤】 평안백화점을 매수해가지고 그동안 근본적대수리를가하

西谷金鑛問題로

儒林洞民合勢反抗

陳情、大會等等大騷動惹起

事態의進展을注視

【奉化】 경북봉화군내성면유곡리(乃城面酉谷里)는 금광문제로인하야 전동민이며 일반유림에서는 매우불안한상태에잇다고한다 유곡리는 충정공충재권선생(忠定公冲齋權先生)의 유지로서 선생의자손이 다수거주하고 선생의유택 별세(別墅)사우(祠宇)분묘(墳墓) 서원(書院)이 산재함으로 일반유림에서는 보호숭배하야오든바 지난 대정이년에 안동군권태주(安東郡權泰胄)란사람이 금광을 출원하얏슴으로 실지조사한결과 공익상장해가 유함으로 불허가의 처분이 잇섯든것이 작년 이월경에 영주(榮州) 영목 금삼랑(鈴木金三郞)외 일인이 유곡전구를 금광으로 또다시 출원하얏슴으로 전동민이 궐긔하야 작년삼월중 천이백여인이 본년십월경이 선원이백여인이 련서하야 총독부에 진정하얏고 십일월이십사일에는 선생의서원이든 삼계서원(三溪書院)에 원근유림이 다수집회하야 유림대표리원영(李源永)씨외사인을 선정하야 군경양청에 극두진정을 하얏다는데만약금광이 면허되면 전동민은년래내스물(流水)로서 음료수(飮料水)를하야왓든관계로 생활에 절대필요한 음료수를 구득할도리가 업고 그외사방(沙防)문제로서 동민급일반유림들은 적극적활동을 하고잇다한다

裡里邑의上水道

導水管故障問題

依然故障原因을未判

【裡里】 리리상수도(裡里上水道)의 도수관(導水管)문제와 대장촌(大場村)수도이취설(水道異臭說)문제에잇서서는 리리읍국에서 적지안흔 문제가되여나음은 물론이라 읍회에서도 화제가되여나오든바 대장촌수도 이취설(異臭說)에잇서서는 명취전에리리상수도주임 우하영(禹夏永)(裡里邑水道主任)씨가 현지에 출장하야 여러가지로 조사한결과 현재에는 특별한 악취를 별노하

敬老會를開催

東浦靑年들의美擧 가마니짜서

【水登浦】 산수가 수려하다이지 고래로수향(壽鄕)이라는 명칭까지잇는 시흥군남면(始興郡南面)은 겨우 륙백오십여호밧게 되지안는 적은면이나 칠십세이상의노인들이 구십여명의 다수에 달하는터인데 면내김동성(金東星) 리원룡(李元龍)최영락(崔永樂)리백순(李白淳)동제씨는 경노회를 개최하기위하야 그자금을 엇고저 면내각리 사백여청년동지를 차저단이면서 한사람압해 가마니두개식을 짜서 모아가지고판매한 수입이 백여원에 달하엿슴으로 지난이십륙일 오후두시부터 군포공립보통학교(軍浦公普校)강당에서 성대한 경노회를 개최하고 여러가지 자미잇는여흥등으로 만흔위안을 주엇다고 한다

府勢發展에따라 配電線이大不足

新陽里西城里를爲始하야

舊市街엔더욱等閑

【平壤】 평양부전긔과에서는 부세의 팔부적발전을따라 전긔수용자가 격증하여지는때문에 여기에 수용할 배전선(配電線)의 연장을 하기로 되어 금년중에 발서 백사십본의 연장을 헷슴에 불구하고 무서운 형세로 공지(空地)를 가옥으로 채우고잇는 신양리(新陽里) 서성리(西城里)방면에는 수용자의만족을 채울수업고 떠러서 곤난을 늣기는 상태이어서 명년도에는 동방면에 힘을넉케되엿다 그러나 오촌리(五村里)방면의 사오백호에서도 배전을 갈망하고잇스나 사오천원의 공비를요하는 터이므로 명년도에는 그 급속한 시설이 힘들모양이다 엇잿든 부전긔과에서구시가의 전반시설을 등한시하고잇서 부민의 불평을 바다가지고잇는 이때라 압흐로의 시설에잇서서도 적지안흔 파란을 가지고 주목하고잇는 상태라한다

異域南滿洲— 學界에핀美談!

學資떠러진同伴을爲하야 同情金釀出卒業시켜

【奉天】 봉길선산성진(奉吉線山城鎭)보통학교에서는 불과삼사개월의 졸업기를 압두고 졸업리는 생활난에 정갈로 모교를 등지지안으면 안이될 비운의동무를 구하기위하야 어린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빈낭(貧囊)을 터러 눈물겨운 동정을 앗기지 안은재만동포 교육계에서는 처음보는 미사실(美事實)이 잇다 동교 제륙학년생 박무용(朴武用)의 가정은 학교에서 사십리(四十支里)상거되는 농촌에서농업에 종사하는바 근년에는 해마다 수확이 여의치못하여 극도의 빈궁한 생활을 근근히 계속하면서도 배워야산다 는굳은 의지를가진 전긔 박군의 부친은 가진곤난을 달게 바드면서 그아들무용을 당지시내에 긔숙까지 시겨서 통학하여 오든바 운명의 작난인지 조물주의 시긔인지 피끌른 열성과 반석가튼 의지로서 통학년——그리고 영예의 졸업긔를 압둔 박군의 압헤는 설상가상으로 가정생활의 근본 이요 학자의 유일한 원동력인 농작물이 금년수해로 일립(一粒)의 수확도 어들수업게되여 부형의 열렬한 성의와 동무동군의 구든 향학심도 그만 수포로 도라가서 일본의학자금도 딴돈할 도리가 업는동군은 그만 정긔든 학창을 떠나지 안흐면안될 사정에림하게 되자 이 사정을 알게된 동교당국에서는 백방으로 고학시길 방칠을 강구하여 보앗스나 그 역시 여의히 되지못하여 랄망에 울고잇는 동군은 등교할용긔조차 일코 결석중에 잇서는데 동사실을 알게된 동교 륙년생 삼십사명일동은 자발적동정심으로 삼십여원을 만출하여 졸업긔까지의 학자에 충당케한후 동군을 다시 등교케하얏다는데 이사실에감동된 당지거주 최관창(崔觀昌)씨도 불소한 금액을 전긔박군과 기타 일반생도를 위하야 희사하엿다한다

家庭不和로 人妻投身自殺

【水原】 지난이십구일오전여섯시반에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水原郡日荊面西屯里)에사는 김영석(金永錫)의처(妻)김씨(金氏)(二七)는 서호(西湖)에 투신자살한것을 동팔시에 지나가는사람이발견하얏다는데 그원인은 가정불화로인함이라한다

◇訂正 本報第五二二一四號朝刊三面地方人事欄에揭載된林文錫氏(雲山郡守)宜川郡榮轉云云은誤記이기玆에訂正함

時計各種破天荒廉賣

十個年保險付

◎時價十五圓品을 單五圓에!!

大量輸入大量販賣

弊會社에서는今般各國時計를直接當會社工場으로부터部分特設하고破天荒의廉價로此를一般大衆에提供케되엿숩니다。大量購入하야通信販賣法에依하야設立된法人으로一文도보다도良品을一文도보다도廉價로販賣하오며不信用한일은絶對로하지안습니다。사신後에破損이나故障이잇거나마음에맛지안으시면交換又는返金하여드리겟습니다。

◇時間正確、體裁優美、價格低廉、絶對責任付◇

◇先金이면送料弊社負擔◇

クローム側
◎瑞西製 16型提時計 時價十五圓品 金五圓也
七石入 時價二十圓品 金六圓也
七石入 時價廿六圓品 金八圓也
◎瑞西製 17型提時計 堅牢實用品 時價金三十圓品 金五圓五十錢
◎瑞西製 17型腕金時計 時價二十圓品 七石入 金六圓也
◎十八金代用側腕時計 時價二十圓品 七石入 金六圓五十錢
(以上クサリメタル付)

商報進呈

新義州府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電話長一二二四番 振替京城二一四三五番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詳人巡查試驗問題集第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水標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振替京城二三〇三〇番 (規則書即送)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本町、水原、開城、大田、木浦、大邱、釜山、延安、平壤大和町

十一月廿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五〇分 午後一時五〇分 六時四〇分

◆獨逸우파超大作日本版 왈쓰競爭

一年에一次大對社의大作品 4分의3拍子로의世界巨映

◆佛國巴理、에도와 日本版 우리 꿀 主演 꿀다

日活特作全發聲 大河內傳次郞主演 明治三度笠

全館通 團成社 光化門 九九

景品附歲暮贈答用品大賣出

十二月一日부터三十一日까지

歲暮의贈答用品은!

優良한贈答用最適品을豊富하게具備陳列하압고大景品附大賣出을開催하압는「여러분의和信」으로混雜키前에下命하심을伏願하나이다

여러분의贈答用品은極히美麗하게包裝하오며配達도親切迅速을目標로이歲暮에和信의使命을一層發揮코저努力하겟슴니다

二種景品大奉仕

景品種目

甲券(六圓券)
一等 家具一揃(방세간한살림)(三層欌、衣巨里、洋服欌、鏡臺)
二等 純金簪(七匁)及蓮峯一個、白米十叺(四斗入)
三等 毛本緞寢具一組、赤狐毛首卷一、旅行具一式(毛布一、革鞄一、高級傘一)
四等 鏡臺一、掛鐘一、和信商品券(十圓)、純銀酒盃壹付
五等 化粧品函入、化粧石鹼一打、額緣、白銅사시(銀峯付)菓子盆、其他
六等 特選라을一枚、鉛筆一打、手巾二枚、高級便箋紙一、其他特選景品

乙券(二圓券) (空籤이無함)
一等(二本) 十八金片側懷中時計、純金指環(三匁五分)
二等(三本) 特上廣木二疋、銀時計一、白銅七棟飯床器一組
三等(五本) 和信商品券(十五圓)、革鞄一、柱時計一、瓦斯곤로一
四等(十本) 絹座蒲團三枚、세-루衣次、高級쇼-르一、置時計一
五等 毛메리야스上下一組、絹사이사스一、白銅神仙爐一、其他
六等 化粧石鹼一打、白銅사시一、銀簪一、其他
七等 메리야스一、靴下二足組、和信크림、其他
八等 靴下二足、札入、玩具一個、其他
九等 [illegible] 其他

景品進呈方法
◎每六圓買上에甲券一枚를、每二圓買上에乙券一枚를進呈함
●金銀製品에는每十五圓買上에甲券一枚、每五圓買上에乙券一枚를進呈함
◎每五十錢(但金銀製品은二圓五十錢)買上에補助券一枚式을進呈함
●特價品에는景品券이無함
▲乙券三枚로甲券景品을一枚式抽籤하실을得함
▲甲券一枚로乙券景品三枚를抽籤하실을得함
▲補助券四枚로乙券一枚式交換하실을得함

和信商品券 (五圓以上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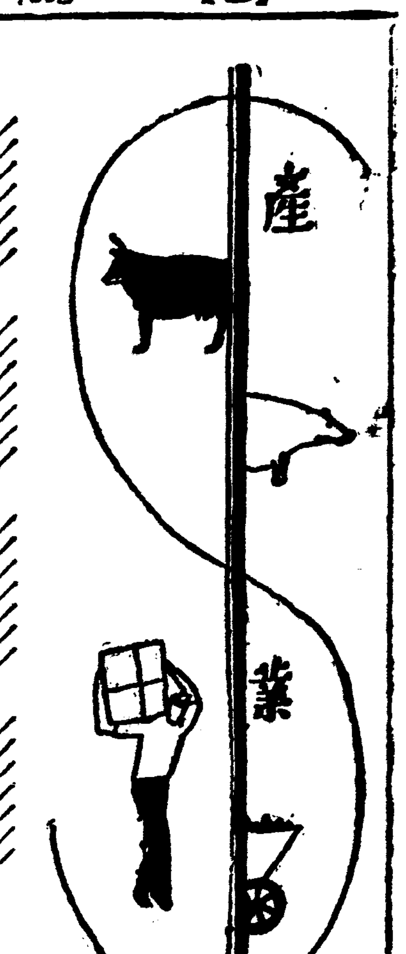
보내시기에輕便、바드시면滿足하실和信商品券

年末年始의贈答用品으로!

案內係로下命하시면親切히說明함!

贈答用品拜承所特設

和信 京城·鍾路 代表番號光二六八〇番



萩加工品 海外進出頗有望

輸出用으로大量入注

莞草製品에 朝鮮產의 尖兵으로 海外에서 氣焰을 吐하고잇는이지음 이번은 朝鮮產萩細工에 對하야 商工獎勵館에 神戶의 輸出商으로부터 大量入注가 잇섯다 이는 朝鮮產의 萩加工果物籠에 對하야 北米輸出用으로 二十萬個의 注文이잇슨것이오 商工課에서는 곳 이를 物產館製造의 京畿道에 移牒하얏다 現在 京畿道에서는 漣川、開豊、加平의 三郡을 獎勵區域으로 現在 年產十萬圓의 產額이잇서 만히 期待를 갓고잇다 그러나 이注文은 目下로는 價格等이 不明하다

珍島海苔新出廻

一束平均一圓으로取引

今年三百萬圓生產豫想

朝鮮海苔의 出廻는 今年은 昨年보다 五日間 일러 全南珍島로부터 八十三束 木浦에 出荷를보아 一束平均一圓으로 取引되엇는데 今年의 篊建込面積은 六千六百九十萬坪으로 前年에 比하야 三百八十四萬坪의 增加로 十月末의 暴風으로 篊砂損을 生하얏스나 前年에 比하면 順調임으로 產額은 二百四十萬圓을 突破하야 三百萬圓으로될豫想이다

鰮油再入札

朝窒三圓六錢으로

十一月 東海岸 鰮油의 不定量入札은 過般 一回入札에서 價格이 맛지안허서 再入札키로되엇든바 三十日再入札의 結果 定量入札價格보다 一錢高 卽三圓六錢으로 朝窒에 落札되엇다한다

春肥低資貸付高

一千百七十五萬餘圓

比前年三百餘萬圓增

昭和九年度(昭和十年 一月부터 同八月까지의) 春肥資金 貸付額(金組分除外)에 對하야 總督府 農林局에서 調査한데依하면 總貸付額一千百七十五萬一千五十三圓으로 內三百九十七萬七千六百三十一圓은 六月中 貸付額(總額의 三割四分) 十七萬九千六百九十八圓은 七月中貸付額 總額의 七分一厘에 該當한바 이것을 貸付者別로보면 東拓이 五百七十一萬二千五百餘圓(總額의 四割八分六厘) 殖銀이 六百三萬八千六百餘圓(總額의 五割一分四厘)으로 豫定보다 六分三厘의 增加이어서 前年同期에 比하면 三百九十萬五千四百餘圓의 增加를 보앗다는데 그原因을들으면 첫재 米價高로 因하야 肥料의 施用이 增加한것 둘재 肥料價가 前年에 比하야 一割乃至 三割이 騰貴된關係라고한다

撫順의 叺生產

年三十八萬餘枚

【撫順】米의產地인撫順에는 朝鮮人民食을 비롯하여 各種經營가 잇는데 朝鮮總督府의 補助를바더 叺生產을 積極的으로 獎勵하고잇서 農閑期를 利用하야農家의 副業으로 年三十八萬一千六百餘枚를 製產하고잇는데 그代金이 三萬一千百四十八圓에 達한다 製叺原料가 廉價이만큼 利益도 相當하여 純利益만이 二萬千四十餘圓에 達하며 압흐로 더욱發展하는 水田事業에따라 農家의副業으로 製叺製繩業이 相當히有望하다고한다

火賊 林巨正 (227)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六의六

배돌석이가 나중에 황천왕동이를 말릴사람업는데로 끌고가서 단둘이 맛부터 롱록이해보라고 맘을먹고 자긔집으로가려들때에 방우복이가 뛰여오고 또 뒤미처서 리봉학이와 늙근오가가 쪼차들와다 졸개들이어듸서보고 가서 말들을한것이다 방우복이는 배돌석이를 붓들어세우고 늙근오가는 배돌석이의 군복을 닙혀주엇다

『대체 웬일이요 서종사 본대루 이애기좀하우』

방유복이 뭇는말에

『두분새에 말다툼난것이 귀기본하면 우숨의쏘리 한마듸잘못한까닭이요』

서림이가 이야기시초를 내노흘때 리봉학이가 손을 저으며

『여긔저긔서 내다보는것들이창피하니 우리 어듸가 들어안저서 이애기합시다』

하고 서림이의 이야기를 막앗다

『대장댁사랑으루들 가실까요』

『아니 대장댁사랑은 재미업구 어듸루 갈까 좁드래두 우리집으루들 갑시다』

리봉학이가 배돌석이와 황천왕동이와 기외에 달은사람들을 다 끌고 집에와서 계향이 모자를 달은집으로 보내고 방을 치우고 들어안진뒤에 서림이시켜서 두사람의 말다툼 한것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게하얏다 서림이가 두사람면전에서 이야기를하는까닭으로 한편에 치우치지안토록 말을 극진히 조심하고 옥신깍신한말을 옴길때도 변해본방 길막봉이를 돌아보며 틀린이업느냐고 물어보앗다 서림이의 이야기가 끗난뒤에 리봉학이가 황텬왕동이와 배돌석이를 번갈어보면서

『우리가 각성바지루 모여서 형이니 동생이니하구 지내는데 한띠줄을 바든 친형제버덤 더우애잇게지내야 하지안느냐 그까진입에 서루 얼굴을 붉혀가지구 쌈질을 하려구한단말이냐 너의들 둘이 다 지각업는사람이다』

하고 두사람을한데 꾸짓고 그다음에 황텬왕동이더러

『대체루말하면 네가 형을 형대접안는데서 말다툼이낫스니까 네 잘못이만타 네가 한말이란게 도무지 철딱신이업는 아이들의말이나 진배업다. 다시좀 생각해봐라』

또 배돌석이더러

『천왕동이가 네게는 전날 친한동무요 지금정다운동생인데 말버릇이 좀고약하다구 옷동을 버서부치구 곳 사생결단이나할것처럼 서둔단말이냐 그게 어듸 지각잇는사람의짓이냐 그러구 형이란사람이 매사에 용서썽이잇서야하지안느냐』

하고 두사람을 각각 타닐럿다 배돌석이와 황텬왕이는 다가리 고개를 숙이고 말한마듸 못하얏다 늙근오가가 허허우스며

『친형제간에두 비위틀리는때는 쌈질을하는데 의리모은 형제간에 말다툼하기두 녜사지 무어 이사람들 붓그러워할꺼업네』

하고 수다를 부리엇다 방유복이가 황텬왕동이더러

『네가 동생이니까 절하구 사과해라』

하고 말하야 사람이 싹싹한 황텬왕동이가 선뜻 닐어 나서 배돌석이에게 절을하고

『내가 잘못햇소』

하고 사과하니 배돌석이는안가닙쓰듯이 응쏘리를 한번하고 나서

『나두 잘못햇다』

하고 마주사과하얏다 배돌석이와 황텬왕이의 말다툼이 낙착이 다낫슬때 신불출이와 노롱이가 가치와서

『배두령 황두령 두분을 대장께서 오라십니다』

하고 꺽정이의 분부를 전하야 배돌석이와 황텬왕동이가 꺽정이게로 오는데 리봉학이외의 여러사람도 다가치와서 꺽정이는 배돌석이와 황텬왕동이가 도회한뒤 길까에서 드잡이를하얏다고 말을듯고 희가 대단이 난판이라 볼르지안흔사람은 가라고 소리를 질럿다달은사람은 다무류하야 말도못하고 나가라는데 리봉학이가 아프로 나서서

『둘이 말다툼하는것을 시종본사람이 서종사하구 말봉이니 두사람의 이애기를 들어보시는게 조치안소』

하고 말하얏다

『길까에서 드잡이를 햇다는데 말다툼이라는게 다 무어냐』

『와서 말슴을 엿주는게 풍을 떨어구려 서종사더려 이애기를하라구 들어보시우』

배돌석이와 황텬왕동이의 서로말다툼한것과 서로 화해한것을 서림이가 모다 이야기하야 꺽정이는 다듯고 한참동안 아무말 안코 잇다가 황텬왕동이를 보고

『네가 돌석이게 사과를하려면 김억석이를 차저와야겟다 조선팔도를 다 휘매서라두 차저와야지 만일 못차저 오면 돌석이는 고만두구 내가 용서안하겟다』

하고 말을 닐럿다

勞働市場巡禮 ⑭ (鐵工所篇)

煤煙이자욱한데 맛치든職工四百

少年見習工이折半以上을占領

元山支局…一記者

元山의 工產額은 年四百萬圓臺를 向하야 肉迫하고잇는데그中鐵製品은 不過數十萬圓이니 이것으로서 元山의 鐵工所는 其地位가 微弱함을 窺知할수잇다 그러나 元山의 各產業分野에잇서 今後 躍進元山의 決定的契機를 지어줄 方向은 依然히 工業元山의

建設로 將來 가장 發展할 性能을 가진것은 鐵工所의繁昌이리라——

이럿케 發展性과 有望性을 가진 現有 元山의 鐵工所는 엇더하며 그곳에서 機械와가치勞働力을 供給하고잇는 勞働者의 狀態는 엇더한가?

元山의 鐵工所로서 電力을使用하고 旋盤等 機械를

裝置한 곳은 不過十五六個所이고 其餘는 모다 舊型舊設을 그대로 가지고 잇는 小規模의 鍛冶所 數十個所뿐이다 이러케 商都、漁港의元山은 鐵工所를 一種의繼子取扱을 한 感이 不無하리만큼 其設備는 微弱하다 따라서 資本主義的經營으로서 特記할 鐵工所라고는 몃個所가 못되는것이다 그러대 이곳에서는다만

現代的 規模로 經營을 編成하는 途中에잇는 電力을 動力으로하고 旋盤等 諸機械를 裝置한 鐵工所만을 本論의 範圍圈內로 制限하라고 하는바이다

前記한 鐵工所中에서 朝鮮人이 經營하는곳은 不過六七個所이고 其外는 모다 日本內地人의 經營이며 年中無變코 百餘名의

勞働者 를使用하는곳은單한곳밧게업는 現狀이다 朝鮮人經營으로 設備가 整頓되여 다른鐵工所에 遜色이업는 곳이란 金剛宋元의 두鐵工所이다 이럿케 이方面에서도 朝鮮人은 勢力을 일코 外來勢力에 壓倒를 當하고 잇는狀態 그러나 經營主에잇서서는 朝鮮人보다 日本內地人이 그數에 잇서 優勢이나 使傭者인

職工 에 잇서서는 朝鮮人이 全部를 차지하나 다름업시 全數約四百餘名中 朝鮮人以外의 職工은 數十名에 不過하다

記者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鐵工所를 巡訪하기는 十一月中旬어느날이다 먼저 鐵工所村이라고 稱할 元山海岸通六丁目을 차저 金剛、宋元、富岡等

諸工場 을 보앗고 다음에는 榮町、明治町 春日町 等地로 巡訪하며 杉本、前田、三玉、原田、澤井等工場을 보앗다 그어느 工場을 勿論하고 旋盤、모—루빤、미—링等 諸機械의 回轉하는 騷音과 마치소리의 擾亂으로 工場內는 形容할수업는音響으로 기득차잇섯다 그속에서 機械기름과 더가 무더서 얼넌얼넌한

作業服 에 中折帽子를 쓴 成年職工과 小倉服에 學帽를쓴 少年見習工이 機械의 配列과함께 여긔 저긔에 配置되여 鐵棒을 잘으고 구녕을 뚤코 鐵을 깍고 鐵을 불에 달과서 맛치로 두다리며 쇠를 鎔解식혀 一定型으로 鑄造하며 이것저것을 모아서 組立하야 器物을 만들어내고잇섯다 더욱히 鰮魚豊獲을 謳歌하는 그때에는 工場마다 鰮油搾機를 만히

製作하 고잇섯다 그다음이 鑛山用具 建築用具 農業用具 發動船附屬品製作 및 修繕等이엿다 이러한 數萬 器具와 機械는 需要時期를 따라서 生產高의多寡가 決定되는同時에 勞働力需要의 消長이 隨伴하게되다고 한다 卽 秋節이가장 活氣를 띄게되어 各工場은 勞働力需要가 增加하나 雪寒冱冬의

枯渴期 가 오면 가장 閑散하게되야 各工場에서는 勞働力의 縮少를 敢行하야 冬眠한듯 命脈을 이어가게된다고 한다 이것은 勿論 其工場의 資本力의 微弱을 말하는것이며 其施設의 非進步的編成을 意味하는것이리라 그러므로鐵工業所職工으로서 大部分은 겨울이면 다른 職場으로 轉職하게되다고한다 그러면 그들의

賃金은 엇더한가? 그들의 『삭전』 이라고는 最高가 每日 三圓 內外이고 普通이 一圓五十錢 內外이며 最低는 二十錢이다 이것은 職工과 見習工을 通해서 一律로 말한것이고 少年見習工은 最高가 八九十錢이고 最低가 二十錢이다 이 鐵工所의 賃金은 다른 勞働市場보다 比較的 놉흔 感이잇스니 그것은 다른 職場과 달라서一種의

技術을 要함으로서이라고한다 그들이 한사람압헤 職工이 되랴면 적어도 七八年의 長久한 歲月동안 그部門에對한 技術을 修得함이 업시는 안된다고한다 이러케 오래동안 煤煙을 呼吸하면서 修得한 技術의 代價이 一日 一圓五十錢內外이라는것이다 그들뚝가튼 熟練勞働者라할지라도 部門에 따라서

旋盤工 火造工、鑄物工、仕上工等으로 區分되여 各其專門部門에서 勞働한다고 한다 그런대 어느 工場을 보던지 熟練職工보다 未熟練 勞働者 인 少年 見習工이 만흥이 눈에띄운다 그 어린 少年이 五六年乃至 十餘年을 辛苦한 後에야 職工 다운 職工이 된다고 한다 이러케 그들은 日光과 絶緣된 媒烟어린 工場에서 힘업는 勞働이라도 꼭 참고 하지안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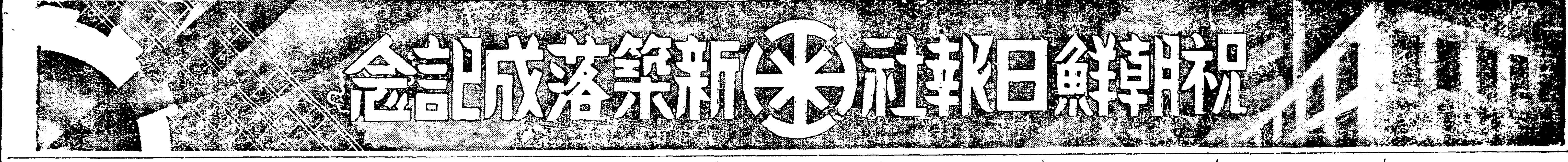
熟練工 이란 地位를 엇지 못하고 糊口難이란 悲運에 逢着할것이니 실턴 조턴 技術을 修得하지 안흘수업스며 그보다 勞働力을 팔지안흘수 업게한것이 그들의 境遇이다 그리하야 每日 九時間 乃至十一二時間을 成年職工과가티 工場에서 지나는것이라고한다 記者가

歷訪할 때는 擧皆가 九時間 乃至十時間의 勞働을 하고 잇섯다

이러케 元山의 鐵工所를 두루돌아단기고 歸路에 올라슬때 記者의 머리에 깁흔 印象을남겨준 某工場事務室에서본 肺病(?)에걸닐 二十前後의 青年職工이 다시금 머리에 떠올은다 그는 非衛生的工場生活에서 病魔의 몸이 되지안헛든가 오직

내눈에 보인것은 그靑年한명이로되 내가 보지못한『그청년들』이 鐵工所에는 그얼마나 만흘것인가 새삼스러운 相愛인줄 알면서도 그들의 保健을 爲하야 工場의 衛生施設을 一層 改善하고 그들의 健康에 寄與가 잇게하기를 속으로 바라며 발길을 催促하얏다【鐵工所篇終】

【訂正】勞働市場巡禮記 第九回『製材所篇』中第一段十行에『年五、六十萬才』라는것은『年一千五、六百萬才』의 誤植이기 訂正함.



長興

長興郡廳內 平近俱樂部 電話四番

長興警察署 電話四〇番

事業要綱 苧布 米穀販賣 繩叺 苧麻購買 經濟用品
社團法人 長興產業組合 電話四五番

長興郡面長一同

長興 三成麯子株式會社 電話五〇番

全南長興 高永完

道會議員 金俸寶

長興 面協議員 魏鍾善

長興郡 長興海苔漁業組合

冠山面玉堂里 白守寅

冠山學校組合 管理者 增田曉之助

長興鄕校 直員掌議一同

全南長興 金甲基

大德面新月市酒造場 李亨白

長興 辯護士 坂田豐 事務員 宋幸鎭

長興 辯護士 加藤孝一 電話二二番

司法書士 金祐述

司法書士 郭漢善

長平面酒造場 氏原嘉利

長興面三山里 曺一煥

長興郡長東面 面協議員 鄭庸植

江界

平安自動車商會

平北江界邑 綢緞布木商 中央商會 電話七三番

太白燒酎釀造元 江界釀造株式會社

金莘鉉

平安北道江界郡江界邑 江界電氣株式會社

江界邑內 安義弘

桂淳

江界 李瑺錫

江界邑內 崔德成 電話一〇五番

江界 沈淇碩

江界 金成吉

江界邑 江界共益組合 組合長 田時恒 電話三九番

平壤洋靴店

信行紙物店

金榮福

江界邑

江界邑內 金義勇

金承洙

金宗元

江界邑內 平壤堂時計店 電話六番

金鍾旭

江界邑內 韓奉琨